

“지회 간부와 조합원 함께 총파업 총력 조직한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이어가 ... 대구지부 조합원 만나 투쟁 의의 공유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7일 아침 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현장방문으로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 4일 차 일정을 시작했다. 삼성공업분회는 자동차 조향장치를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조합원 81명이 있다.

윤장혁 위원장과 현장순회를 마친 김지후 분회장 등 간부들은 “금속노조 결정 따라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분회는 위원장에게 힘차게 뛰면서 투쟁하는 금속노조를 이끌어 달라며 운동화를 선물했다.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의 총파업 결의로 큰 힘을 얻었는데 선물까지 주시니 정말 고맙다. 노동자 민중의 새 세상으로 더 힘차게 뛰겠다” 라고 결의했다.

노조 순회단은 이래에스트라지회로 이동해 상집 간담회를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3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 이번 4월 현장순회는 동지들의 의견을 듣는 여정이다. 많은 의견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류채원 지회장은 “대구지부의 가장 큰 조직답게 금속노조 총파업 투



쟁에서 제 역할 다 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순회단은 이어 KBI메탈지회 현장에 들어가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KBI메탈지회 젊은 동지들을 보니 참 좋다. 젊은 동지들이 지회와 대구지부, 금속

노조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라면서 “위원장이 선두에 서서 차세대 간부 동지들과 강력한 금속노조를 만드는 투쟁을 조직하겠다” 라고 밝혔다.

박용선 노조 대구지부장은 “7월 총파업으로 가는 투쟁을 이미 시작했다. 조합원 동지들이 나설 때이다” 라며 “4월 13일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부터 5월 1일 세계노동절 대회까지 주요투쟁에 함께 하자” 라고 독려했다.

이재환 지회장은 “간부 동지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총력을 다해 조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래에스트라·KBI메탈지회, “총파업 투쟁 총력 조직한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나흘째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노동자·민중과 노동조합을 둘러

싼 상황이 좋지 않다. 물가·금리·인플레이션 경고 등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악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윤석열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방해 요소 제거를 약속하고,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추진한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금속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결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라며 “앉아서 짓밟힐 것인지, 공세로 받아칠 것인지, 이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역설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믿고 자신 있게 투쟁하자. 불평등 청산 총파업 투쟁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자” 라고 독려했다.

“뜨렷해진 노동운동 목표, 총파업 성사한다”

노조 지회장 의무교육 마쳐 ... 열띤 학습·토론, 리더십·간부 역량 강화 방안 등 교육

강의를 보는 눈은 빛났고, 토론하는 말은 간절했다.

금속노조가 2022년 지회장 의무교육을 마무리했다. 노조 지회장들은 강의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띤 학습 분위기를 만들었다.

노조 지회장들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노동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쟁취 금속노조 총파업 성사를 결의했다.

올해 지회장 의무교육은 금속노조 단양 교육연수원에서 세 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1차 교육은 3월 23일~24일, 2차 교육은 3월 30일~31일, 3차 교육은 4월 6일~7일에 열렸다. 올해 의무교육에 지회장, 사업장 대표자 등 365명이 참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4월 6일 3차 교육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때부터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며 친재벌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윤석열 취임 전 이 시기 금속노동자의 결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투쟁하는 금속노조,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자”라고 독려했다.

함재규 노조 교육위원장은 6일 입소식을 시작하며 “전통과 역사의 금속노조 지회장 교육 입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면서 “노동과 노동자의 역사는 투쟁, 저항, 권리 쟁취의 역사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답을 찾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리더십 교육으로 첫날 교육을 시작했다. 신임 지회장들은 ‘리더십과 지회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위원장의 강의를 들었다. 이어 지회와 지회 활동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을 토론했다. 해결 방안을 찾는 특별 토론회를 벌였다.

재선 이상 지회장들은 역사학연구소 최규진 선생의 ‘노동의 역사, 투쟁의 역사에서 희망을 배운다’ 라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통해 올해 총파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 조직화에 힘쓰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조 현장 간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현장 간부 활동역량 강화 방안’ 을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장간부 등 수요자 중심형 역량강화 사업을 마련하되, 산별노조의 지향성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 7일 둘째 날 교육은 금속노조 법률원이 시작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활용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교육으로 김용철 성서공단 노조 상담소장이 연임 이상 지회장들에게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 실태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임 지회장들은 노조 서울지부 김태을 수석부지부장으로부터 인권 기본 교육을 받았다.

1박 2일 동안 여유 없이 진행된 일정에도 지회장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열성을 다해 교육에 참여했다. 지회장들은 ‘지회장이 처음이라 두려웠던 사업들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생각을 다시 깨우치게 하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통해 금속노조 방향성과 조합 운영 방향성에 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라는 평가를 남겼다.